

# 윤동주 십자가에 나타난 실존적 자기완성

배지연(한영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존연구소 대표)

## I. 서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하늘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작들 중 하나인 「서시」이다. 「서시」는 1941년 11월 20일에 쓴 시작으로서 윤동주(1917-1945)가 연희전문학교 4학년 재학중에 있을 당시이다. 자료에 의하면 윤동주는 「서시」를 쓰고 그동안 모아둔 시작품 중에서 19편을 가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자필 자선시집을 엮어서 출판하려다 지도교수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류양선, 2012:116). 이 시점에서 시인이 자신의 시집을 출판하려 한 것은 시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적인 실천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우리 인간성과 인간의 실존적 곤경을 고려할 때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과연 몇명이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와 유사한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까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시인은 부끄럼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곧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실존의 한계를 지닌 존재를 사랑하고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시인이 「서시」에서 고백한게 전부라면 우리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울컥하는 감동과 자신을 성찰하는 도전을 받는데서 멈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아는 순간 감동은 충격을 넘어 하나의 트라우마 사건처럼 강하게 뇌리에 각인이 된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한 1호 독자가 필자이다.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고 살기 위해 시인이 선택한 삶의 길이 「서시」를 쓰기 6개월 전에 작성한 「십자가」에서 전하는 그 길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우리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할말을 잃어야 마땅할 것이다. 상담을 전공한 필자가 윤동주의 「십자가」를 소재로 선택해서 글을 쓰고자 한 것도 이와 같은 충격의 연장선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실존의 내적 외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간다. 그러는 중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미해결된채로 살다가 정신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때 청년 윤동주 시를 연구하고 음미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생체기를 가진 우리에게 청량음료와 같은 치료적인 효능감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24세 청년 시인이 자기와 인생과 이웃 그리고 민족에 대해 고뇌하는 수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도 미치지 못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삶

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의 인간적 성숙과 신앙의 깊이가 신앙적이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가정적인 배경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윤동주는 오히려 철이 들지 않는 나르시즘에 빠진 청년의 모습을 보여야 더 맞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는 자신을 성찰하며 자국의 주권과 영토상실에 대한 슬픔을 자기 상실로 내재화시켜 상실의 고통을 정면으로 직면하며 자국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고자 한다. 오늘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실의에 빠진 우리가 배워야하고 본 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결단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십자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인 자신이 자기를 의식하며 온전한 자기로 성숙되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실존적 불안

<십자가>는 <자화상>과 <서시>와 함께 3대의 명시에 속한다(이유식, 2009). 그는 1938년 3월에서 1941년 12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33편의 시를 썼고 위의 세편의 시는 모두 그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재학하던 시절에 쓴 시들이다. 그는 1917년 만주의 북간도(현재 중국 연변자치주)의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27년 2개월의 삶을 살다가 1945년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애를 마쳤다. <십자가>는 1941년 5월 31일에 창작되었고 앞에서 밝힌 바 있는 <서시>는 그로부터 6개월 후 1941년 11월 20일에 썼다. 그가 쓴 시의 처녀작은 1934년 12월 24일에 쓴 <삶과 죽음>과 <초 한대>와 <내일은 없다>이다. <초 한대>는 기독교의 속죄양 의식을 나타내는 시로 보고 그의 삶은 이 <초 한대> 시에 나타난 속죄양과 같이 그는 그의 죽은 운명을 예감하고 시정신을 확장, 심화시켜나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명환, 2000: 45). 한편 <삶과 죽음>은 이후 그의 작품을 특징짓는 원형질 것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권오만: 64). 그가 쓴 최후의 시는 1942년 6월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봄>이다. 1942년 봄은 윤동주가 도쿄에 있는 릿쿄 대학 영문과에 입학한 때이며 윤동주 생애에 완성본으로 노트해 놓은 시작이다. 이처럼 그가 쓴 시작은 4연은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도 한데...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의 끝부분은 시인이 동경에서 서울에 있는 강처중에게 편지와 함께 보냈지만 편지를 폐기할 때 함께 폐기되었다(전광하, 박용일, 2002: 25). 이것을 두고 그의 시를 연구하는 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한다. "그는 도달할 수 없는 '봄'을 한없이 그리워한대, 이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그의 삶과 시는 마치 누군가 짜 놓은 듯 신화적입니다. '봄'을 자신의 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까지도.."(2015: 기독교사상. 문화와 신학.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그가 마무리하지 못한 마지막 시작 <봄>과 그의 처녀작 <삶과 죽음>은 <십자가>를 통할 때 어떤 완성된 해답을 얻는듯 하다. 그러나 그의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고뇌와 절망에 비하면 서둘러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시 한편은 그가 쓴 어떤 시보다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적 이미지가 담겨있으며 시인이 던진 궁극적인 질문과 관심에 모든 초점을 응집시키는 자기확장과 자기완성의 이미지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십자가>는 시는 모두 3문장과 5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 먼저 첫번째 문장과 1연을 보고자 한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이시에서 '십자가' 시어는 두번 반복된다. 십자가와 교회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다.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시작들(초한대, 태초의 아침, 또 태초의 아침, 무서운 시간, 서시 등)도 읽는 자들에 따라 예수의 고난과 희생 정신을 담은 기독교 색채가 강한 작품들이다(이동근, 2010). 그러나 <십자가>는 읽는 자들의 시적 감각이나 신앙적 민감성 없이도 제목 자체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의 깊이 전달된다. 그가 선택한 많은 시어들 중에 <태초의 아침>이나 <팔복>과 그리고 <참회록> 등과 같은 신앙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은 있지만 십자가는 너무나 명백한 성경적인 용어이며 기독교의 상징성을 가진다. 그가 살던 동시대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하고 반감지 않는 타자로부터 사상과 언어의 자율성에 대한 탄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십자가>란 제목의 시는 그냥 단순한 충성심이 가득찬 신앙고백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오늘날까지 많이 읽혀지고 연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시에 담겨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시인이 견뎌낸 그 어둠의 시대...폭력의 시대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깔고 있"으며 "시인의 마음 깊이 짙게 드리운 그 음영은 정결하기 짝이 없는 시인의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시를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류양선, 2012: 191).

시인의 시는 민족을 초월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직면해야하고 고뇌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해준다. 시대적인 아픔과 부끄러움에 내용은 다르지만 인간 실존은 인간에게 곤경없는 사회와 개인의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의 십자가를 저야하는 제자도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진리의 빛을 쫓고 있는 한 그 빛은 반드시 십자가를 비출 것이고 아무리 충성스런 제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멈칫거리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 또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뇌하면서 한편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실존을 직시해야 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 것이다. 이와 같은 고뇌와 방황은 그가 빛을 쫓고 있었고 빛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이다. 그러는 중에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햇빛이 걸린 십자가였던 것이다.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곧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된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처럼 한없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세속의 시간을 깨뜨리고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해바라기가 해에게서 햇빛을 끌어올 수 없고, 해가 해바라기에게 햇빛을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류양선, 2012: 187).

햇빛의 의미는 신앙의 태도(정호승), 신의 은총(한홍자), 기독교 진리(박재현), 광명과 진리와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최영미) 등 기독교와 관련된 개념들로 해석한다(심재웅, 37).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햇빛'의 발원은 빛이고 빛의 근원은 빛을 창조한 신이신 하나님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고...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인류의 빛이었"고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기록한다(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구니까?"(요한복음 12장 34절)라고 묻는 말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추론해볼 때 <십자가>에서 햇빛은 문자 그대로 햇빛인 동시에 햇빛을 창조한 하나님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류에게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 성육신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볼 수 있다. 시인이 "쫓아오던 햇빛"은 앞의 성경 구절을 추론해 볼 때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시와 함께 살다 시와 함께 죽고 시와 함께 살고 있는 윤동주는 그가 사용한 시어를 통해서 이미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 중에서도 자신 속에 희망을 품고 있었고 민족이 새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고 바라고 그리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알지 못했겠지만 그가 햇빛을 쫓으며 살아온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 그의 모든 진지한 고뇌가 의미가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작이 <봄>이었다는 것도 그의 진지하고 엄중한 시적 고백에서 그가 시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더 밝게 환희 비치는 이른 새벽의 봄 햇살과 같은 생명의 환희를 교회당 꼭대기에서 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인 윤동주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역설을 품고 있는 단어를 시어로 선택하면서 기꺼이 그동안 자신이 햇빛을 쫓아왔다고 말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인의 이러한 삶에 태도가 <서시>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길 희망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마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이 생기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 시인은 "짧은 날의 방황 고뇌, 절망, 슬픔, 참회, 동경"의 시를 쓰는 청년으로, "자기 성찰과 극복의 독백"을 무수히 되뇌이며 "부끄럽지 않는 삶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조재수, 2005: 637-638). 시인이 <십자가>를 쓰기 3개월 전에 창작한 시가 <무서운 시간>이다. "윤동주는 '무서운 시간'에서 곧 죽을 자기를 무서운 지경으로 불러내어 괴롭히지 말라고, 정체불명의 어떤 부르는 자("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에게 직접 대답했다"(이상섭, 2004: 45).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그 무서운 부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아주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그렇게 죽을 것처럼 무섭고 어둡게 느껴지던 시간에 그가 본 것은 한가닥의 빛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새롭게 그의 삶에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증으로부터 쫓았던 빛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쫓았던 빛임을

알고 일중에 존재의 안정감과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정하고 바라보기까지 그는 <팔복>이나 <무서운 시간>과 같은 '운명론적인 절망'을 노래했어야만 했다. 시인은 1939년 9월에 <자화상>을 창작한 이후 1년 여의 창작기간의 공백을 거쳐야 했고 그 이후 나온 첫 작품이 <팔복>과 같은 절망적이고 운명론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시인에게 <자화상>을 쓴 이후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고 그 시기는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임수만, 2008: 118). 윤동주 시인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가 맞은 신앙적 회의는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과 타자의 인간성에 내재된 죄성에 대한 불안이 심리학적인 조용한 격분 혹은 신앙적 회의로 표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은 인간이 죄의식이 결여되었거나 혹은 죄의식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불안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여기서 죄는 원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원죄를 말하는 한 윤동주가 죄성은 그의 행위나 생각 혹은 사상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죄를 이해해서는 안된다.

인간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죄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념으로 존재하지만 그 개념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어떤 상태나 행위 그리고 어떤 학문에 귀속 시킬 경우 그것은 가짜가 되어 버린다. 죄는 지속적인 것으로서 자유가 현실적이듯 죄도 현실적인 것이다. 원죄의 특성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에게 불안을 일으키며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으로써 나타난다(키에르케고르, 2006: 148).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틸리히와 몰로 메이 또한 유한성은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한다. 나아가 "불안은 언젠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실존적 사실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체험이며 자기 지식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경험"으로 이해한다(배지연, 2015: 129). 따라서 시인이 느끼는 운명론적 절망이 신앙적 회의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한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사랑하며 살고자 조용히 맹세하는 시인은 자기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죽음의 시간은 무서운 시간이었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비릇 회의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느낀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키에르케고르, 2006).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기독교적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생명은 건강과 힘으로 충만해 있는 경우에 발견되기 보다는 그 죽음 가운데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161).

이처럼 윤동주 시어에서 보여준 번민, 고통, 우수, 비탄 등등의 지상적인 번뇌와 시간적 번뇌는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더욱더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보다 더 괴로운 번민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의미이지 실제로 두려움이나 무서움 그리고 공포심이 아예 생기지 않거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인에게는 쫓던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죽음을 가져다주는 병으로부터 지켜주었고 지켜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적인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다.

## II. 실존적 절망

시인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적인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첫번째로 그가 자신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기는 했지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인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바라 본 대상은 십자가에 걸린 햇빛인데 그 햇빛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온 그 햇빛이 걸린 자리가 자기 존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햇빛으로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됨과 자기가 자기됨은 별개로 독립된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그 둘의 관계는 자기가 예수와 상관관계를 맺고 상호적인 합의를 통해 일치성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시인은 자기 자리에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 정신적인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배경 내내 기독교적인 생활을 해야 했던 그였기 때문에 신이 특별히 면죄해줄 수 있는 통과례가 아니었다.

‘지금’ 그가 직면한 실존은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의 몸으로 체화해야 하는 격이 다른 신앙적 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실존이었고 민족의 실존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여전히 그에게서 까마득한 길처럼 보였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지점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막다른 골목길이 없음을, 그의 청소년 시절을 기록치 않는 삶을 지켜준 유일한 그 빛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 시인은 그를 사랑해준 신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무능력과 한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저 높은 탑에 걸린 십자가를 오를 수 있을까를 염려한 것이다. 그는 힘없고 능력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며 과연 신의 분성을 가진 분만이 오를 수 있는 그 높은 십자가의 침탑을 그도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는 단지 시라기보다 기도이고 화자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는 동시에 침탑에 앞서 오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침탑이 높다든 것보다 "어떻게"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다고 할 때의 '~ㄴ 데라는 어미에는 시적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득한 거리감이 미묘하게 담겨' 있으며 햇빛이 머문 그 십자가는 "참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나 시인의 능력으로 "열어 제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길"인 것이다(류양선, 2012: 193). 지금까지 쫓아왔고 앞으로도 쫓아야 할 그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이 비추는 곳이 십자가이고 지금의 그의 실존적 운명이 교회당의 높은 침탑에 있는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곳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어떻게" 이다. 침탑이 높다는 것만 부각키느라 시인이 정작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놓고 서성거리며 고민하는 지에 대해 놓친 것이다(이상섭, 2004; 최명환, 2000). "지금" 시점에서 시인의 실존적 고민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강박한 타자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호소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실존적 한계를 이미 직시했고 실존을 수용하기 위해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런 아픔을 겪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 실존적 한계를 넘고 초월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릴까 아니면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를 기다리며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린다. 여기서 시인이 서성거린 것은 "순교자적 결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의 정신적 패배"(채현주, 1991: 31)를 의미하거나 "교회 생활에서 소외된 자로" 보이나 "교회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자로서 "교회와 관계가 없는 양"(이상섭, 2004: 126) 보이려고 서성거린 것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해석이다. 시인이 "종소리"가 울리길 기다리며 "휘파람"을 분 것은 자신의 실존적 한계로 인한 절망(존재의 필연성)의 끝에서 바라본 십자가가 신이 부르는 '소명'(존재의 가능성)과 일치할지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카타르시스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인은 신이 부를 그 "소명"의 길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도 같은 고난의 길임("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을 이미 의식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인은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님을 그가 쫓아왔던 진리의 빛으로 깨우치고 있었다. 그가 <십자가>를 창작하기 이전에 한차례 강한 광풍과 같은 내적인 갈등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을 놓고 신과 단독자로서 대면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인의 시작의 순서로 추론해 볼수 있는데 시인이 <십자가>를 창작한 시점은 1941년 5월 31이고 죽음이 부르는 무서운 시간을 노래한 시점이 1941년 2월 7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한 시점이 1941년 11월 20이라 데서 착안할 수 있다.

시인이 <십자가>를 노래한 것은 시인으로서 <쉽게 씌여진 시; 1942, 6.3>에서 처럼 "슬픈 천명"을 다함이라기 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 준비를 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자신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전광하, 박용일, 2002: 22, 24). 그

래서 시인의 서성거림은 시대적 고난에 대한 회피나 부인과 같은 자기방어적인 행위나 순교라는 신의 '부르심'을 미리 짐작하고 그 부르심에 앞도당한 자의 행위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 또한 시인의 존재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의 존재됨(becoming being)과 존재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청년으로서 시인의 나이는 까마득히 잊게 만들고 시에 나타난 성숙한 시인의 존재적 바다를 마음껏 향유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의 나이가 20대 중반에 미치지 못한 젊은이임을 감안을 해야 한다. 그것이 시인의 실존이고 시인의 시를 읽는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대적인 나이가 그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재적 성숙도는 연대적 나이와 무관할 수 있으며 청년이었기에 더욱 명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시대와 자기 존재를 통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십자가>를 쓰기 전 약 2여년 전 1939년에 쓴 <별뿔 떨어지는 데>란 제목의 그의 수필을 보고자 한다.

밤이다.

...

나는 이 어둠에서 잉태되고 이 어둠에서 성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속에 그래도 생존하나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듯이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내리누르는 아무 것도 없는듯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 이 점의 대침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한다. 덩석 움켜쥐었으면 잡힐듯도 하다. ..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배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보니 행복이란 별스런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될가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속에 깜박 깜박 조이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것은 벌써 지나간 제네레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겨오는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량을 자랑치 못함에 빠져리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에 선배도 믿지 못할것이라니 그러면 령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아차! 저 별 이 번쩍 흐른다. 별뿔 떨어진데가 내가 갈 곳인가보다. 하면 별뿔 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어디로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며 시인은 자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인이 이글을 쓴 때는 연희전문학교(1938, 4, 9)를 입학하고 1년이 지난 23살 무렵이다. 같은 해 5월 시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종로구에서 하숙을 하다가 일본형사의 감시를 피해 북아현동으로 하숙 집을 옮긴다(전광하, 박용일, 2002: 150). 그가 단지 일본형사의 눈을 피해 어디로 이사



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본다면 여전히 인생에 대한 시인의 깊이 있는 고뇌와 통찰을 놓치는 것이다. 그가 고민하는 "방향"이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졸업 후 한 이후 진로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인의 대학 생활이 오늘날 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수준의 내용과 격이 다름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착안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잉태와 성장과 실존이 "어둠"이어서 새벽을 손님 기다리듯 기다리지만 새벽이 온다 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암담"하다고 고백한다. 시상을 떠올리고 시를 창작하는 일은 "생생한 관념세계"에만 머무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새벽이 온다해도 그가 가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런 암담한 마음은 그로부터 2여년이 훌쩍 지나서 <십자가>에서 "서성" 거림은 나무에게 운명을 초월해서 가야 할 방향을 묻던 관념적인 서성거림을 초월하고 있다. 시인은 "서성"거림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미 시적인 관념세계에서 탈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존에서 지향해야 할 명확한 "방향"을 앞두고 서성거리는 실재적 행위인 것이다. 시인은 <별뚱 떨어지는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밤이 새도록 고민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실존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다가 문득 "별이 번쩍"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별뚱 지점을 주시하며 빛을 쫓아 오다가 그 빛이 침묵에 있는 십자가에 걸리는 것을 본 것이다.

시인이 관념세계에서 탈피했다는 것은 시인으로선 천명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인에게서 그것은 그의 "정신 활동" 즉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일치된 것을 의미한다. 즉, 외면적인 자기와 내면적인 자기가 합일을 이루는 자기성숙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오랫동안 어둠과 싸우면서 절망했고 자기와 관계를 회복한 지금 여전히 그는 절망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의 절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선 그가 그 십자가에 자신을 올려 놓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허락되느냐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라기 보다 현실성 속에 던져질 가능성을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절망감이다. 시인은 예수가 십자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한 것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태복음 26:39; 현대인의 성경). 예수는 세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했고 기도하기 전에 "몹시 괴로워"(마태복음 26:37)하며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자신의 실존의 고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시인이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리며 종소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대과업을 앞두고 괴로워하며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마태복음 26:40)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궁극적인 관심에 직면하여 단독자 앞에 선 시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거운 무게를 타자에게 양보하거나 물려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기다림에 참여해주길 바라는 양가적인 감정 상태였을 것이다. 종소리에 대해 <십자가>를 읽는 청자들은 구원을 종소 이런 시인의 실존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전력을 다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기 혼자 힘으로만 절망을 제거하려고 한다

면, 그 때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로서는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다. 절망의 분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그 자신과 관계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조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그것의, 그것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을 동시에 이 관계를 조정한 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무한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식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조정한 힘 가운데에 투명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다. .. (키에르케고르, 2006:164-165)

겟세마네에서 예수의 절망은 인간 예수 자신이 인간이 모습으로 한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분열되어서가 아니었다. 키에르케고르의 언어를 빌린다면 자신을 조정하는 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부터 놓여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인간 예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절망은 곧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의해 인간 예수가 죽음으로써 인간 예수는 원래의 영원성으로 귀속되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메시야로 확정되는 가능성의 절망으로 전치되었다. 이와 달리 시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와 관계하는 관계성의 불완전함 혹은 분열로 인한 것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온전히 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다(이상섭, 2004: 196). 그러나 다행스럽게 시인은 자신이 자신과 관계에서 오는 소외(폴 틸리히는 인간의 실존적 죄를 한마디로 소외로 봄)를 극복하려는 자기와 관계하는 자기를 수용함으로써 겸허히 신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또 다른 절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시대속에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고 그 어둠은 결국 자신의 내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절망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종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종합이 신의 손에 의해서만 원래부터 정당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그 경우에도 인간은 절망할 수 없었으리라. 그렇다면 정말 절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종합이 그 자신에게 관계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도 인간을 이런 관계가 되게 한 신이 인간을 이른바 그 손에서 놓여지는 것을 통해, 즉 관계가 정신이며 자기라는 바로 그 점에 책임이 있게 되는데, 모든 절망은 이 책임하에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는 한 그 모든 순간은 이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166).

시인이 지향해야할 분명한 방향을 확인 한 지금 시인은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절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절망한다. 왜냐하면 절망은 신이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신이 인간에게 손을 놓았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절망은 인간이 신과의 연합을 필요로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인은 지금 신과의 연합을 하는 동시에 자신과 관계에서 온전한 자기로 연합하는 그 방법을 기도를 통해 찾고 있는 것이다.

#### IV. 실존적 자기 완성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 조국은 타자의 나라로부터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의 주변 환경은 매우 평화롭고 넉넉하며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건강하고 내적인 온전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도움과 관심 그리고 애정어린 손길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상들이 늘 주변에 있었다. 그가 태어나서 소학교를 다녔던 명동촌은 산과 바위 그리고 자연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그는 예비 시인으로서 꽃과 나무 등의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시상을 떠올리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속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혈통적으로 윤동주는 성품이 좋고 교육적이며 재력을 갖추고 살아가던 증조부 윤재옥과 조부 윤하연 그리고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교편을 잡았던 부친 윤영석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의 외삼촌 김약연 목사 또한 명동촌에 일찌기 이주하여 공동체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윤동주가 문과를 선택해서 부친과 갈등을 빚을 때 중재 역할을 해 주는 등 윤동주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명동학교에 교사 정재면에 의해 집안이 개종을 하게 되고 집안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교회당이 세움으로서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은 윤동주의 건강한 인성과 풍부한 지성 그리고 신실한 신앙심을 키우는데 의미 있게 작용했다.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던져진 시인의 현존은 환경적으로나 집안 배경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만족스러웠지만 시인의 시를 통해 본 그의 존재론적이고 심리적인 실존은 앞에서 추측한 것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독립에 기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할 인재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시인의 시야에 비친 현실은 냉혹했고 야비했다. 일본의 제재를 받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조국을 떠나 중국에 살았고 그곳 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서 시인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만 않았던 것이다. 그의 이런 갈등은 <이런 날>에 잘 나타나 있다. "사이 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오색기(만주제국의 국기)와 태양기(일본 국기)가 춤을 춘다"라고 노래하는 시인에 대해 김혁은 "수상스러운 시대를 조소하듯 시대의 고통을 명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윤동주의 세계관이 엿보인다"고 기술한다(장백산 2012년 6월호). 이와 같은 시각과 달리 릿쿄 대학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윤동주 업적을 20여년 이상 조사하고 발굴한 일본인 야나기하라 야스코는 윤동주 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에 대해 "외적인 권위나 한시대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느껴진다"고 술회한다(월간중앙 2015년 8월). 시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나타난 그의 존재됨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했던 시점에 가장 원숙한 인물로 빛이 나고 있다.

시인은 원숙한 인품의 청년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공감을 주고 민족간의

화해의 표상으로 제시될 정도이지만 그가 후대에게 남긴 시작은 작은 책한권에 실린 게 전부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절망속에서도 희망과 부활을 꿈꾸는 그의 시어의 향연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인의 삶은 마치 민족주의나 파시즘의 제물이 된 듯하나 그는 시와 함께 살다가 시와 함께 죽고 시와 함께 우리곁에 머물며 시를 읽는 우리에게 치유와 희망과 존재의 용기를 주고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의대와 법학을 전공하라는 부친의 권유를 만류하고 가출까지 감행하면서 문학인의 삶을 선택한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대신 시적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기념으로 시집을 출판하려 할 때 그가 처음 지은 시집의 제목이 '병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추론은 더욱 현실성있게 다가온다(전광하, 박용일, 2002: 150). 시와 맺은 시인의 특별한 인생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읽는다면 기도하듯 노래하는 그의 시에서 문학의 장르를 넘어 시대적 아픔과 공동체의 구원을 소명으로 품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한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그의 원숙함, 사상의 보편적 가치, 풍부한 서정성, 깊은 민족애와 인간애, 예리한 지성과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윤동주였지만 그가 신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는 의문과 고민에 가득찬 한 실존자였고 무기력한 피조물이었다. "저렇게 높은 침탑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라고 조용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은 신과 오랜시간 단독자로 서왔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지금도 고뇌하는 단독자로 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쓰면서 십자가의 독배를 마시기전 괴로워 죽을 지경에 처하여 기도했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십자가>를 창작하기 약 5개월 전에 <팔복>을 쓰면서 그는 또 한번 팔복을 역설하던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시대를 통해 시인이 떠올린 예수는 "슬퍼하는자"였고 그런 예수의 모습은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투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슬퍼하는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하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것이요"라고 시를 종결한다. 슬픔이란 정서의 뿌리는 상실이다. 윤동주의 상실은 잃어버린 조국이

상실한 주체성이고 그와 동일시한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고 자기 상실일 것이다. 시인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본 예수의 상실은 하나님이 맡긴 자기 백성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과 위로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이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 운동주와 달리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 구원의 대과업을 성취시켰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자들에게 “팔복”에서 예언한 행복을 주는 표상이 되었다. 따라서 시인의 고민은 더 이상 예수에게 자신을 투사하거나 동일시할 수 없는 한 실존의 절망자로서 예수가 갔던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는 어떤 누구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스스로 십자가를 졌지만 신 앞에 선 시인 운동주는 신의 허락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신을 상실한 시인은 자기를 상실한 자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없다. 신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또한 결코 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지만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그는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것, 절망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인 것이다. 따라서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절망의 제2형태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제1의 형태로 환원될 수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의 병이 육체를 먹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혼의 병(죄)은 혼을 먹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데서 혼의 불사성을 증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은 절망적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없다는 데서 그것이 곧 절망에 있어서의 모순의 고뇌라고 하는 데서 인간 속에 영원한 그 무엇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인간 속에 아무런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을 테고, 또 절망이 절망자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키에르케고르 2006: 172).

시인의 절망은 식민지국의 국민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한 실패나 패배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최악에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그를 삼켜서 그의 존재를 없애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이다. 즉 그는 지금 십자가에 걸린 햇빛이 자신을 영원으로 초대하는 빛임을 감지하였고 십자가가 그가 가야할 궁극적인 길임을 알았지만 지금 신이 자신을 그 자리에 초대할 것인지에 대해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절망은 자신이 자기의 실존적 한계를 벗어나도 여전히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처럼”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서성거리며 신의 계시를 기다리던 그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확신한 것이다. “십자가가 ‘허락’되는 순간이란 영원이 세속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고뇌에 찬 시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락’의 순간에 괴로움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니, 이 새로운 탄생”(이상섭, 2004: 203)은 <팔복>에서 강조되었던 슬픔을 이제 영원한 행복의 노래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침묵 위의 십자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던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떠올린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몹시 괴로워했던 예수, 죽음의 역설을 부활로 보여준 예수, 슬픔의 애통을 행복한 기쁨으로 승화시킨 예수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꽃처럼.....피를...흘리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서 꽃과 나무는 그의 동무이자 교사였고 멘토였다. 인공적인 정원이든 자연적인 정원이든 꽃이 피는 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때로는 강의실에서 교수의 명강의를 듣는 것보다 정원에서 풀과 꽃을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 화원이 있습니다. 한포기 푸른 풀과 한떨기의 붉은 꽃과 함께 웃음이 있습니다. 노트장을 적시는것보다 한우충동에 묻혀 글줄과 씨름하는것보다 더 정확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지, 보다더 효과적인 성과가 있을지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 단 혼자 꽃들과 풀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참말 나는 온정으로 이들을 대할수 있고 그들은 나를 웃음으로 나를 맞아줍니다...나는 세계관 인생관 이런 좀더 큰 문제보다 바람과 구름과 햇빛과 나무와 우정, 이런것들에 더 많이 괴로와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말이 나의 역설이나, 나 자신을 흐리우는데 지날뿐인가요.(윤동주, 1939: 127-128, 윤동주 시집)

시인에게 꽃은 동무들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정확한 진리"를 탐구하게 해주는 매개체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꽃에 비유하여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무섭고 공포스런 죽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게 해줄 꽃과 같은 죽음을 죽겠다는 것이다. 꽃이 죽으려면 꽃이 져야하는데 시인은 꽃이 피어나듯이 죽으려한다는 역설속에 그는 그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둠의 거짓을 밝혀줄 진리의 빛과 연합하는 것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자신도 밝혔듯이 역설적으로 그는 거창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 고뇌하기보다 진리를 깨우치고 우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설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인은 인생관이나 세계관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존재관과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게 해줄 진리에 대한 탐구에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었다. 이것 또한 상당한 역설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역설은 그가 사용한 유비적 비유에서 더욱 강게 전달된다. 시인은 자신의 고뇌에 예수의 괴로움을, 자신의 죽음에 예수의 죽음을, 그리고 햇빛과 진리의 빛을, 피어나는 꽃과 부활을 서로 연결시켜 전자가 후자의 후광을 받아 그 자체의 실존을 초월할 가능성을 개방하고 후자는 전자로 말미암아 더 실존적인 감각으로 체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피"에서 '죽어가는 꽃'이 아니라 '피어나는 꽃은' 부활을 함축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문제보다 "바람과 구름과 나무와 우정"으로 인해 더 괴로워했다고 하는 시인은 애써 시대의 어둠을 외면한 듯 하지만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피를 흘리겠다는 말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의 조용한 성품을 반영하는 "조용히"라는 부사의 사용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남들의 주목을 끌거나 영웅심을 보여주는 일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조용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적인 기도를 올린다. 그는 조용하게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을 내면에 담아 두었지만 그것이 세상과 시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하늘은 땅위의 하늘이고 세상을 품고 있는 하늘이라는 점에서 하늘은 자신의 고향이자 조국이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민족주의 파시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의 빛이 가려진 어두운 세상이고 지속적인 어둠에 덮혀 있는 세상이다. 그는 그런 세상에 향해 큰 소리를 택하는 대신 고통스런 죽음을 택하여 조용한 외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자 한다. 이런 모습은 "역경의 고통이 많을 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귀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 된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존 칼빈, 2006: 225, 228).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려움을 자원하는 것입니다...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김창훈, 2006: 373-374).

이제 더 이상 시인에게서 십자가는 애통이나 고통이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다. 시인은 십자가 앞에서 서성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어둠을 밝히는 꽃과 같은 붉은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마치는 순간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괴로움은 기쁨이 되고 "괴로웠던 사나이"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고..."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실존적인 소외의 죽음에 종속시킨 자의 부활이다"이기 때문이다(폴 틸리히, 2005: 236). 시인은 절대자와 단독으로 대면하는 용기를 통해 신에 손에서 벗어난 자기를 발견하고 절망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외된 관계를 극복한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행복을 얻게 되었다.

## V. 결론

시인은 죽었으나 살았고 절망했으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자기의 다른 형태이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로 모든 것의 최후

가 아니며, 죽음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키에르케고르, 2006: 161) 시인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의 지혜를 전하며 인생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실존자로서 우리 곁에 서서 ‘영리한 나무에게 당신에 갈 방향을 물어보시오!’라고...말한다.



## 참고문헌

- 김혁(2012). 룡정 윤동주 연구회. 「장백산」. 6월호.
- 김창훈(2006).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 도서출판 솔로몬.
- 권오만(2015).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마지막회. 「기독교사상」 2월호.
- 류양선(2012). "순교에의 소망: 십자가," 「다시올문학」 다시올문학, 18.186-208.
- 배지연(2015). "실존적 자기 이해에 대한 메이와 틸리히의 변증법적 대화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125-148.
- 심재웅(2010).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연구,"
- 이동근(2010). "윤동주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십자가 표상 연구," 호서대학원 조직신학 석사학위논문.
- 이상섭(2004). "윤동주의 '순교적' 비전: '십자가' 깊이 읽기," 「새국어 생활」, 14권 4호, 겨울. 125-133.
- 이유식(2009). "윤동주시 십자가 해석에 대한 의의", 「월간문학」, 4월호.
- 윤동주(2002).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전광하, 박용일 편저. 흥룡강조선출판사.
- 임수만(2008). "윤동주 시의 실존적 양상: 절망과 불안, 그리고 존재에의 용기," 「한국현대문학연구」. 24집 4월. 97-136.
- 조재수(2005). 「윤동주 시어 사전」. 연세 대학교 출판부.
- 존 칼빈(2006). 「기독교 강요」. (중). 김종흡 외 3명 공역. 생명의 말씀사.
- 키에르케고르(2006).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홍신사.
- 폴 틸리히(2005). 「조직신학 III」. 유장환 역. 한들출판사.
- 최현주(1991). "윤동주 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환(2000). "윤동주의 십자가 분석," 「국제어문」, 21집. 45-59.

